

2013년 6월 (제 9호)

National Maritime Museum Webzine

# 바다 가 들려주는 이야기





# 바다

김소월

뛰노는 흰 물결이 일고 또 잰는  
붉은 풀이 자라는 바다는 어디

고기잡이꾼들이 배 위에 앉아  
사랑 노래 부르는 바다는 어디

파랗게 종이 물든 남빛 하늘에  
저녁놀 스러지는 바다는 어디

곳 없이 떠다니는 늙은 물새가  
떼를 지어 쫓는 바다는 어디

건너서서 저편은 딴 나라이라  
가고 싶은 그리운 바다는 어디

김소월(金素月, 1902.8.6~1934.12.24)

1920년 시 '낭인의 불'

1926년 동아일보 정주지국 설립

작품으로 「금잔디」, 「엄마야 누나야」, 「진달래꽃」,  
「개여울」, 「강촌」, 「왕십리」, 「산유화」 등이 있다.

#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 C O N T E N T S

|         |                                   |    |
|---------|-----------------------------------|----|
| PART 01 | 열린마당<br>목간, 신안해저문화재를 말한다.         | 03 |
| PART 02 | 박물관 둘러보기<br>수족관 새 식구 '광복이'와 '애월이' | 05 |
| PART 03 | 기획전시<br>뉴욕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 07 |
| PART 04 | 소장품 이야기<br>삼국총도                   | 09 |
| PART 05 | 박물관 사람들                           | 11 |
| PART 06 | 박물관 교육행사                          | 12 |
| PART 07 | 박물관 소식                            | 13 |
| PART 08 | 여성노래교실 후기                         | 14 |



## 열린마당

# 목간, 신안해저문화재를 말하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산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흔히 우편물 하면 편지를 떠올렸지만, 요즘엔 택배 상자를 떠올린다. 택배 상자에는 이 택배를 정확하게 배송하기 위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주문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안에 들어 있는 상품의 명칭,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려주거나, 대신 택배를 받아줄 사람이 기입되어 있기도 하다. 이들 정보를 통해 잘 모아보면 우리는 이름과 주소는 물론 그 사람의 기호 및 일상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90년 전 신안 증도와 임자도 사이의 해협에 침몰한 선박에 실린 여러 화물에도 이와 같은 택배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목간이 바로 그것이다. 목간은 본디 종이를 대신해 사용한 긴 나무 막대다. 종이보다 보편화 되면서 목간의 사용은 줄어들었지만 일부에서는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화물 꼬리표로서의 역할이었다. 소나무나 삼나무 등 구하기 쉬운 나무로 얇고 긴 막대를 만들고 그 위에 먹으로 화주, 선적 일자, 물품 수량 등을 기입한 후 끈을 연결하여 화물에 부착한다. 그런 까닭에 일부 목간은 끈이 벗겨지지 않도록 머리 부분에 홈을 파거나, 매듭에 쉽게 꽃기 위해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다. 신안해저문화재는 1975년 발견된 후, 1976년부터 1984년까지 8년여에 걸쳐 발굴이 진행되었다. 목간은 다른 유물에 비해 비교적 늦은 1982년과 1983년 침몰선 밑 부분에 퇴적된 흙을 흡입호스 suction hose 로 빨아올리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총 364매의 목간이 수습되었으며, 대부분 목서가 그대로 남아 있어 다수의 내용을 판독할 수 있었다. 목간의 등장은 베일에 가려져 있던 많은 부분을 밝혀 주었다.

목간이 제공한 첫 번째 정보는 신안선의 침몰 연대다. 목간의 발견되기 전까지 동전의 명문을 통해 1311년이란 하한선을 설정하였으며, 청화백자가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1320년대, 또는 1330년 전후로 추정했다. 목간은 보다 정확한 연도로 인도했다. 신안 해저에서 발견된 목간 가운데는 “至治三年 지치삼년” 또는 “至治參年 지치삼년”이라는 글자와 더불어 “五月 오월”, “六月 유월”, “六月一日 유월 1일” 등 화물의 선적 연월일이 기록된 목간이 8점 발견되었으며, 연도가 누락되어 있지만 “四月廿二日 4월 22일”, “六月二日 6월 2일”, “六月三日 6월 3일” 등 일자가 기록된 목간도 118매나 발견되었다. 지치3년은 원 영종 英宗 의 연호로 1323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선적은 출항 직전에 마무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선박은 1323년 6월 3일 직후 출항했을 것이며 침몰 역시 이후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을 것이다.

목간을 통해 확인한 두 번째 중요한 정보는 화물의 목적지다. 다수의 목간에는 화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신안선에 선적된 화물이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할 곳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화주로는 사람의 이름이나 직명도 있고 사찰이나 신사의 명칭으로 기록된 것도 있다. 화주가 기록된 목간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강사 綱司’로 총 110개의 목간에 기록되었다. 강사 綱司 는 무역선단의 총책임자인 ‘강수 綱首’를 의미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은 수량을 접하는 것은 도후쿠지 東福寺 로 총 41건의 목간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그밖에 조자쿠안 釣寂庵 과 하코자키구 笈崎宮 가 기록된 것도 각기 5건과 3건이 확인되었다.



목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후쿠지는 교토에 있는 사찰로 13세기 송에 유학하고 돌아와 임제종 臨濟宗 을 이끌었던 승려 엔니 円爾 가 창건한 사찰이며 조자쿠안 및 하코자키구는 후쿠오카 하카다에 있는 암자와 신사다. 따라서 신안선이 정상적으로 항해를 했다면 하카다를 기항하여 교토 인근까지 운항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목간은 신안선의 성격을 가늠케 해 주었다. 목간에 기입된 화주들로 볼 때 신안선은 사사조영료당선 寺社造營料唐船 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사사조영료당선은 가마쿠라 막부 말기부터 14세기 전반에 걸쳐 사찰이나 신사의 건립 및 확충 寺社造營 을 위하여 막부의 허가 하에 파견된 무역선들을 일컫는 말이다.

도후쿠지로 가는 화물이 다수 실려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안선 역시 사사조영료당선이었을 것이다. 신안선이 침몰하기 4년 전인 1319년 도후쿠지에 큰 화재가 있었던 점 역시 이를 방증해 준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사조영료당선은 사찰이나 막부가 중심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카다에 거점을 두었던 상인 집단의 주도에 따라 등장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원과 일본의 관계 악화에 따라 거점을 상실한 상인들이 경쟁자들 보다 빨리 회항하기 위해 “사찰 또는 신사의 조성”이라는 간판을 걸고 일본 사회 상층에 있던 사사 寺社 나 무가 武家 와 제휴하면서 사사조영료당선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는 신안 출토 목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도후쿠지가 기명된 목간(41건)보다 강사 綱司 를 기명한 목간(110개)이 거의 3배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이는 새로운 학설을 뒷받침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목간은 신안해저문화재에 역사적 맥락을 부여해 주었다. 최근 태안 마도 등에서 발견된 고려의 선박에서도 목간이 다수 발견되어 우리 역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하고 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이들 목간은 비록 도자기나 금속공예품처럼 화려한 모습은 아니지만, 과거 바다를 통해 세계를 오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에 전하고 있다.





## 박물관 둘러보기

# 수족관 새 식구 ‘광복이’와 ‘애월이’

지난 15일 박물관 4층 전시 수조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제주 서귀포 소재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연구센터 시험장에서 치료 후 바다거북 생태연구에 활용되던 거북 2마리를 전시 수조에 입식하는 입수식 이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센터 측으로부터 5월 13일 거북을 이관 받아 선박을 이용하여 제주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후, 박물관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을 거쳐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거북 2마리는 모두 푸른바다거북(Green sea turtle, *Chelonia mydas*)이다. 두 마리 중 몸집이 큰 ‘광복이’는 2010년 8월 15일 서귀포시 성산읍 해상에서 낚시어구에 혼획되어, 미래양식연구센터에서 낚싯바늘 제거수술을 시행하여 구조하였다. 몸집이 그보다 작은 ‘애월이’는 2009년 8월 10일 제주시 애월읍의 정치망에서 발견되어 미래양식연구센터에서 보호 및 생태연구에 활용하고 있었다. 두 마리는 각각 15살, 5살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수족관 입수 이후 낯선 환경 탓일까 아쿠아리스트가 먹이를 입 앞에 대어 주어도 먹지 않더니 지금은 배추, 오징어 등을 무척이나 즐겨 먹는다. 센터 측에서 곧 보내올 청각도

주어도 먹지 않더니 지금은 배추, 오징어 등을 무척이나 즐겨 먹는다. 센터 측에서 곧 보내올 청각도 공급하게 된다면 센터에 있을 때 식탐이 있던 거북의 모습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박물관은 국내 박물관으로는 유일하게 2013년 2월 12일 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해양생물 보전을 위한 ‘서식지외보전기관\*’ (국토해양부 제6호)으로 지정받았다. 이번에 바다거북 2마리를 확보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거북의 생태조사 및 증식, 학술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 박물관은 바다거북의 생태 및 생리연구 관련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았다. 따라서 2008년부터 바다거북에 대한 연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연구센터와 업무협력을 통해 바다거북의 생태 및 생리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할 것이다. 매월 10일에는 바다거북의 체장(體長)과 무게를 측정하며, 매 짝수달 10일에는 채혈을 통해 바다거북의 생리적 데이터를 추적하고 이를 미래양식연구센터와 공유하게 된다. 박물관 수족관과 미래양식연구센터 보호 수조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바다거북의 생리 관련 데이터 공유를 통해 거북의 생태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정보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2년 7월 개관한 이래 현재 150여만 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간 박물관에서 보호해야 할 해양생물을 널리 알리는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바다거북 이관을 시작으로 국립해양박물관은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연구센터와 바다거북, 해마류, 관상생물 등의 생태 및 생리연구, 증식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센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어류의 양식화 연구에 우리 수족관 배후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공동연구를 하게 된다면 우리 박물관 수족관의 다양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 박물관을 찾는 많은 관람객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되지 않겠는가?

### \* 서식지외보전기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을 대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보호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종 보전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일정한 시설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운영

〈참고〉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지정받은 서식지외보전기관 대상생물

| 보통명    | 학명                            | 비고                |
|--------|-------------------------------|-------------------|
| 푸른바다거북 | <i>Chelonia mydas</i>         | 보호대상해양생물/CITES I  |
| 붉은바다거북 | <i>Caretta caretta</i>        | 보호대상해양생물/CITES I  |
| 매부리거북  | <i>Eretmochelys imbricata</i> | 보호대상해양생물/CITES I  |
| 장수거북   | <i>Dermodochelys coriacea</i> | 보호대상해양생물/CITES I  |
| 가시해마   | <i>Hippocampus</i>            | 보호대상해양생물/CITES II |
| 복해마    | <i>Hippocampus kuda</i>       | 보호대상해양생물/CITES II |

※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I종 :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II종 :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동식물









삼국총도, 율리우스 클라프로트, 1832년, 『삼국통람도설』

### 소장품 이야기

## 삼국총도 三國總圖, Carte des Trois Royaumes

독일 베를린 출신의 동양학자 클라프로트 Julius Heinrich Klaproth, 1783~1835년 가 1832년에 영국 왕실의 동양학 서적 번역기금을 지원받아 번역 출간한 일본의 지리서 『삼국통람도설 三國通覽圖說』에 포함된 지도 「삼국총도 三國總圖, Carte des Trois Royaumes」이다.

클라프로트는 젊은 시절부터 아시아의 언어를 공부하여 동양에 대한 민족지학적, 언어학적 측면을 연구하였다. 1815년에는 파리로 이주한 후에도 동양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며 저술을 남기고 1835년 파리에서 사망하였다.

*Takenosima à la Corée*

*Tsousima*

그가 남긴 저술 중 1832년 중국계 일본인 지리학자 하야시 시헤이 林子平 의 『삼국통람도설』의 프랑스어 번역본은 우리나라의 독도 영토주권과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근거자료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하야시 시헤이의 책을 번역하여 울릉도, 죽도, 우산도가 있는데 우산도(독도)는 울릉도와 죽도의 동남부에 있으며 이 3개의 섬이 우산국을 형성하고 모두 강원도에 속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 책에 같이 실린 한·중·일 삼국의 지도인

「삼국총도」에서 울릉도는 조선의 동해 연안 가까이에, 독도는 좀 떨어진 곳에 2개의 섬으로 그리고 조선과 마찬가지로 노란색으로 칠하여 조선의 영토임을 표시하였다. 또한 독도에 '다케노시마(다케시마)는 한국의 땅이다 Takenosima à la Corée ' 라는 주석을 달았다. 이 주석은 하야시 시헤이의 지도를 단순히 번역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서정철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는 이 주석을 단 의도가 그 섬이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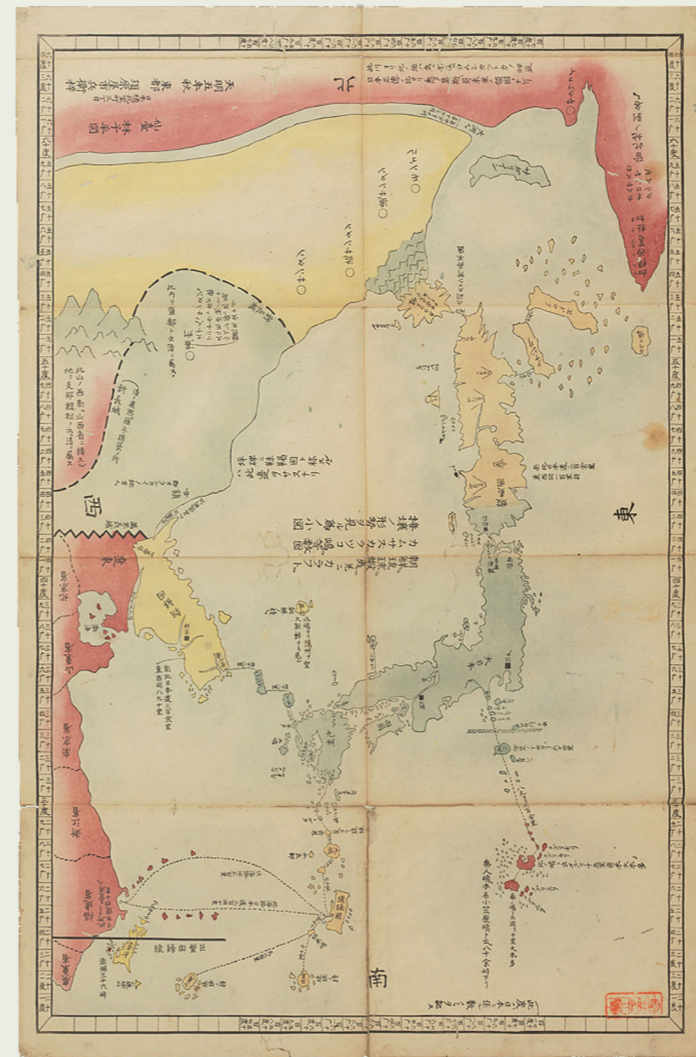
또한 클라프로트의 「삼국총도」가 일본이 미국과의 영토분쟁에서 근거 자료로 사용한 적이 있는 공식지도라는 사실도 이 지도의 역사적 가치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일본 바쿠후 幕府 가 미국과 오가사와라 지역의 영유권 분쟁이 있었을 때 「삼국총도」 제시하여 영유권 결정하는 사료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호사가 유지 교수(세종대 독도연구센터 소장)는 "일본이 이 지도를 공인지도로서 사용한 이상, 그 시점부터 그것은 영유권을

주장을 위한 일본의 공식지도가 된 것이다."라고 하여 이 지도의 가치를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일본이 공식 지도로 인정한 클라프로트의 「삼국총도」를 통해 독도의 영토 주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최근 해양영토와 관련된 유물을 수집하던 중 클라프로트의 「삼국총도」를 입수하였다. 클라프로트의 「삼국총도」 외에도 해양영토와 관련된 박물관 소장 미공개 유물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유물 첫 소개전 - 지도로 만나는 동해와 독도』전이 3층 해양문화관 옆에서 5월 21일(화)부터 7월 14일(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 참고문헌 지도 위의 전쟁, 서정철, 김인환 저, 동아일보사, 2010

백승주(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사)



삼국통람어지노정전도 三國通覽輿地路程全圖, 하야시 시헤이, 1832년



## 박물관 사람들

박물관은 문화적 공간입니다. 단순히 전시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종 체험행사 및 성인 대학 등 교육적인 기능을 통해 대중들의 지식욕구와 다양한 체험을 제공해주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박물관의 기본요소이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유물입니다. 유물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역사적 지식을 전달하는 한 수단이자 그 시대의 잔존물이기 때문에 박물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러한 유물을 소중히 다루고 관리하는 곳이 바로 유물 관리팀입니다.

유물 관리의 시작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에서 시작됩니다. 유물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 길이길이 이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장고라는 보안체계가 되어있는 일종의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을 하며, CCTV와 수장고 출입통제를 통해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와 습도 및 전등의 상태를 확인하여 유물에 가장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킵니다. 유물이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는 수장고 안의 상태확인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화재 및 지진 등의 재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 재해로 인한 유물들의 손실을 미리 방지하고 있습니다.

수장고 안의 많은 유물은 다양한 형태와 재질로 되어 있어 관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장갑을 끼고 유물을 다루거나, 오염된 부분은 세척을 하며, 넘어지기 쉬운 유물은 유물 박스나

한지, 솜포를 이용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안전하게 격납을 하는 것입니다.

유물은 크기와 무게에 따라 격납 위치를 정하는데 거의 대부분 오통나무로 된 격납장에 격납하여 해충과 미생물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있습니다. 또 해양박물관 특성상 닻, 선박 등 크기가 크거나 무거운 유물은 이동이 가능한 나무 받침대 위에 격납을 하여 안전하게 보관을 하며 이동시 충격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은 옛 시대의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만 때로는 부분적으로 손상 입은 상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약한 부분을 보호하거나 보존 처리를 하여 더 이상의 손상을 막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물을 관리하는 일은 수장고 점검 및 보안부터 시작하여 온도와 습도, 그리고 유물을 안전하게 격납하는 등 유물에 대해 많은 애정을 쏟아야 합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보호하듯이 유물 관리팀의 모든 사람들도 유물이라는 아기를 손상 없이 잘 보관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지중지 관리하던 유물을 박물관에 찾아오는 관람객을 위해 전시하면 잘 성장한 자녀를 보듯이 뿌듯합니다. 또 관람객들이 유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 유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나아가 전시유물이 관람객들로 하여금 깊은 감동과 색다른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윤연식(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원)



## 박물관 교육행사

### 우리바다를 지켜요

매주 수~금 / 11:20~11:40 / 유아 / 최대 80명 / 어린이박물관 / 무료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구연동화를 통해 이해시키고 울돌과 함께 동요를 불러보면서 생활 속에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유아교육프로그램



### Happy Weekend 해양생물돋보기

매주 토요일 1회(11:00), 2회(15:00) / 40분간 / 6세~초등3학년 / 30명 / 체험전시실(수족관 앞) / 인터넷 선착순 접수 / 무료

전시실 수족관의 해양생물을 통해 생태계와 생물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해양생물을 보는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만져보고 관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험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 남극세종과학기지 연구원과의 만남(화상통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1:00~11:30 / 전체 / 20명 / 4층 전시실(해양과학) / 현장선착순접수 /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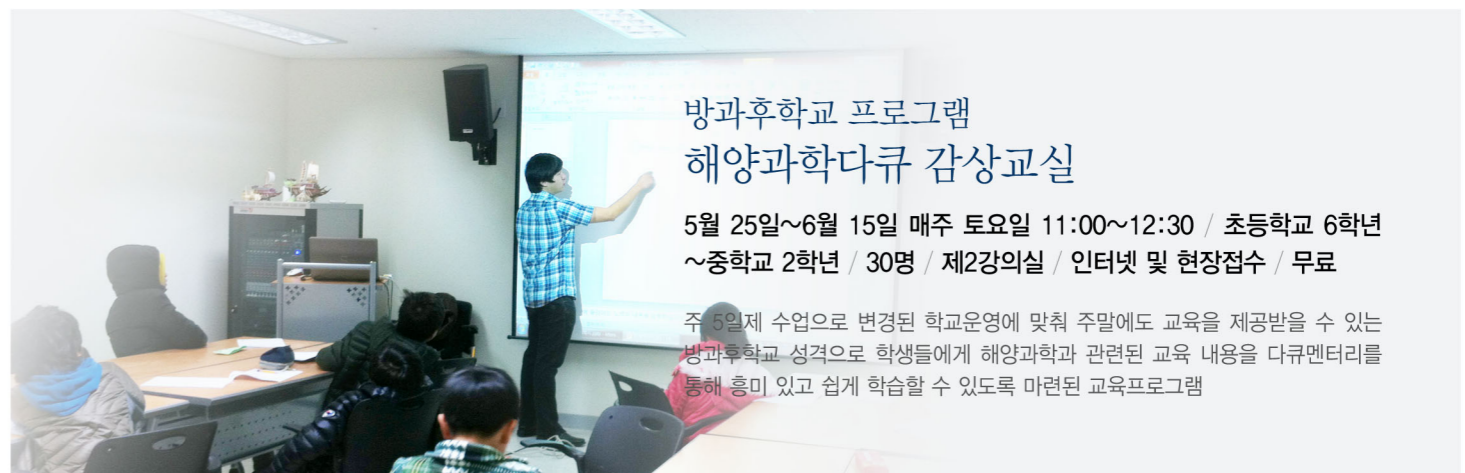
남극세종과학기지 연구원과의 화상통화를 통해 극지연구소에 대해 알아보고 과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해양과학다큐 감상교실

5월 25일~6월 15일 매주 토요일 11:00~12:30 /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 30명 / 제2강의실 / 인터넷 및 현장접수 / 무료

주 5일제 수업으로 변경된 학교운영에 맞춰 주말에도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과후학교 성격으로 학생들에게 해양과학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다큐멘터리를 통해 흥미 있고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프로그램





## 박물관 소식



**국립해양박물관 방문 비정기 여객선 취항**  
2013.5

5월부터 부산내항(연안여객터미널)과 박물관을 잇는 비정기 여객선이 취항 합니다. 지난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시범운행을 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부정기여객선의 운항이 활성화되면 태종대 일대로 운항코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수산물연구원 미래양식연구센터 업무협약체결**  
2013.5.15

국립해양박물관과 국립수산물연구원 미래양식연구센터는 바다거북, 해마, 관상생물의 전시·연구·교육 분야의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바다거북의 훈회 및 좌초 모니터링·구조 및 생태계 복귀활동을 연구할 계획이며, 바다거북의 산란생태 및 산란장 환경조사, 바다거북의 생리연구, 인공증식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푸른바다거북 '광복이', '애월이' 국립해양박물관에 새 보금자리**  
2013.5.15

국립해양박물관 수족관에 푸른바다거북 2마리가 이사 왔습니다. 2009년과 2012년에 각각 제주도 연안에서 구조되어 국립수산물연구원 미래양식연구센터에서 치료 후 연구용으로 활용되던 '광복이'와 '애월이'가 그 주인공입니다. 3층 수족관에서 득직한 '광복이'와 귀여운 '애월이'를 만나보세요.



**국립해양박물관과 KORAL이 함께하는 어촌지역 아동 초청 "해양 문화 체험" 행사** 2013.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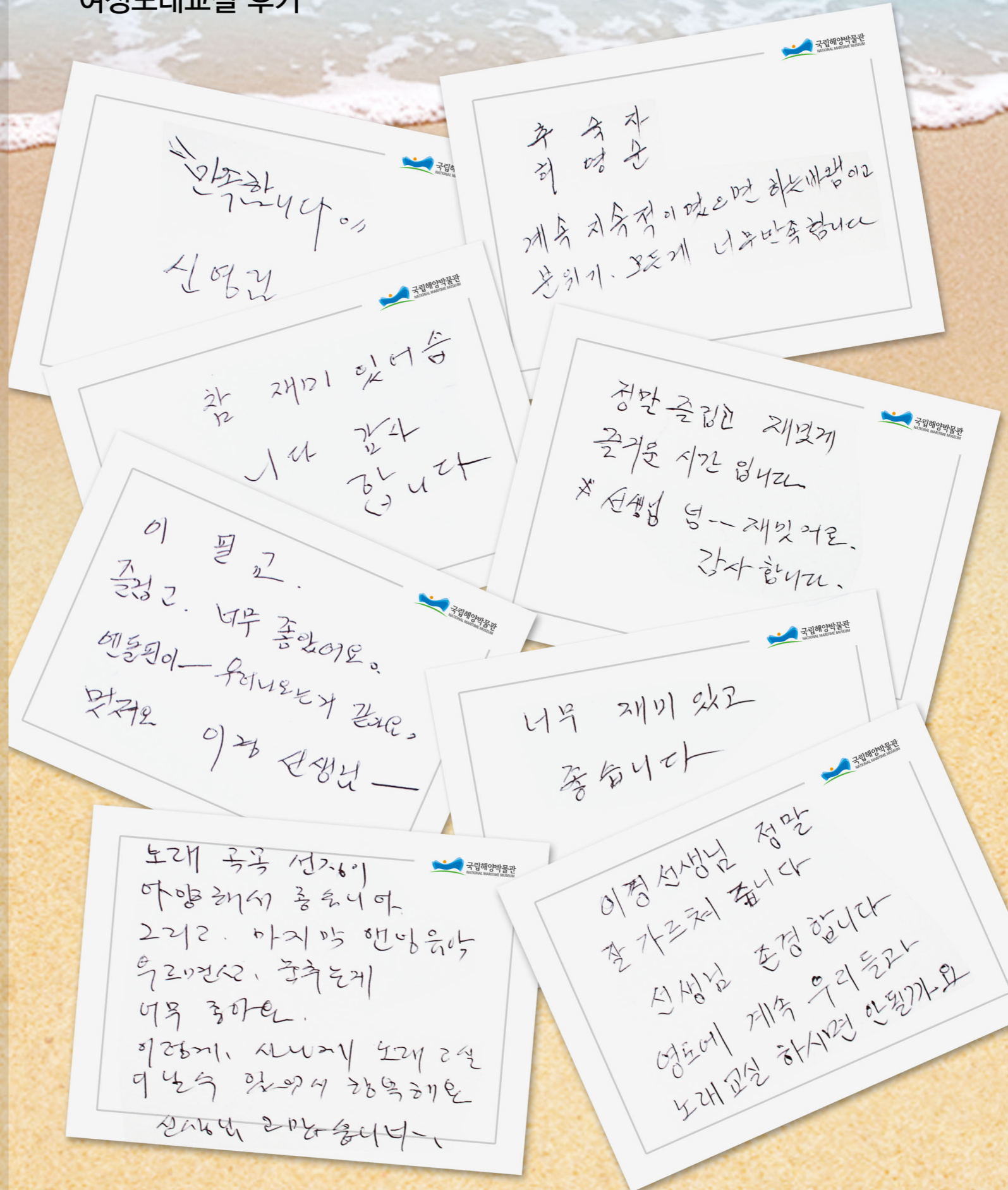
국립해양박물관은 코레일과 공동으로 어촌지역의 아동을 초청하여 '해양문화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초청행사에는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소재의 온양초등학교 학생 21명이 초청되어 부산 열차 여행, 국립해양 박물관 관람, 4D영상관 체험과 '소방정705호'를 탑승하여 박물관에서 오륙도를 둘러보는 해상관광체험을 하였습니다.



**'2013 부산항 축제' 국립해양박물관 일원에서 개최**  
2013.5.31.~6.2

해양·항만관련 체험코스와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2013 부산항 축제"가 박물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박물관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학술행사와 해양사이언스 체험, 모형배 만들기 체험, 박물관 스탬프 투어에도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 여성노래교실 후기





뉴욕자연사박물관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 기후변화와 해양환경展

Climate Change & Marine Environment

보름 여름 떠나는  
Fun Fun한 탐험



2013.6.4.(화) ~ 9.29.(일)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실(부산 영도)

문의 051-309-1841 [www.climatechange.kr](http://www.climatechange.kr)

주최 국립해양박물관 | 해양환경관리공단 | 조선일보 | 환경재단      협력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후원 해양수산부 | 환경부 | 부산광역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기후변화센터      협찬 삼성 | 롯데백화점